

美출판전문지가 뽑은 올해의 베스트북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부문별 양서 33종

소설 부문(16종)

이제부터 연인(*The Sweet Hereafter*) 러셀 벅크스(하퍼콜린스). 학교 버스에 탄 14명의 아이가 사고로 숨졌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벅크스는 뉴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에 일어난 비극의 여파를 탐구한다.

전시의 거짓말(*Wartime Lies*) 루이스 버글리(크노프). 유대인 대학살을 다룬 이 흥미진진한 소설에는 육체적 공포가 아닌 심리적 공포가 깔려 있다. 나치 치하의 폴란드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운 유대인 소년은 그 대신 자기를 잃는다.

도주하는 영혼(*Runaway Soul*) 해럴드 브로드키(파라 스트라우스 지루). 어떨 땐 대단히 섬세하게 어떨 땐 지루하게, 세인트루이스의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한 소년의 성장과정을 그린 이 대작은 가끔 짜증도 불러일으키지만 놀랄 만큼 예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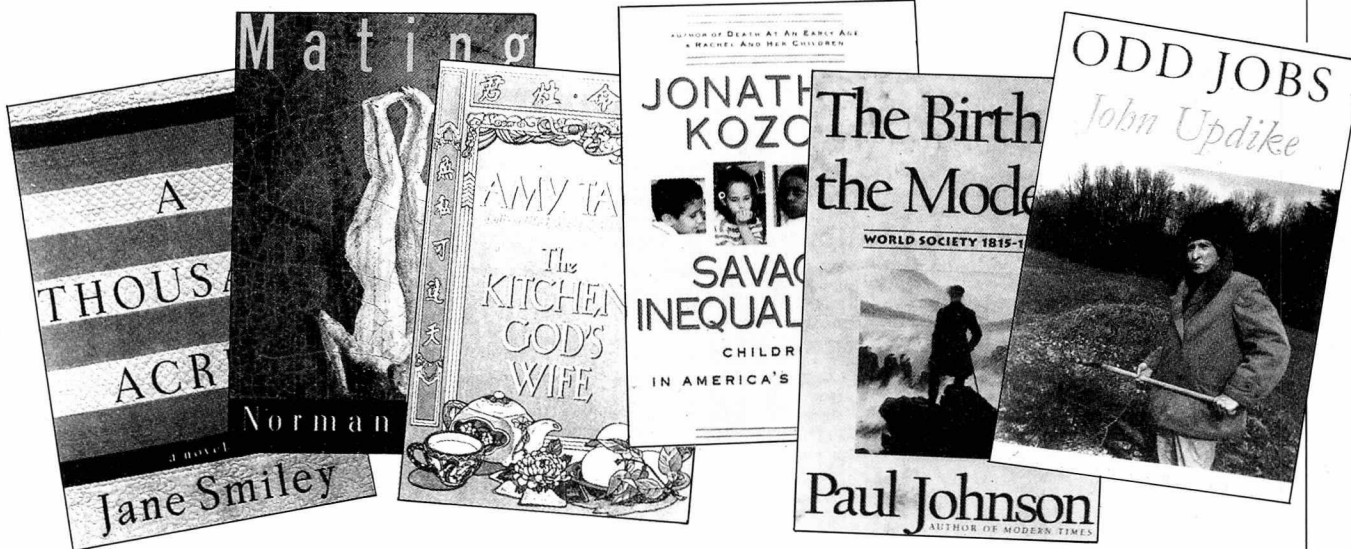
조(*Joe*) 래리 브라운(알콘). 품위와 연민을 깔면서 감상은 배제한 채 브라운은 술에 절고 가난에 찌든 남부 사람들, 즉 공사판 일꾼과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둔 소년의 우정을 그린 다.

형제애(*Brotherly Love*) 피트 텍스터(랜덤). 이 아이러니컬한 제목은 소설이 펼쳐지는 타락한 환경, 파피와 결탁한 노조 간부 집단 사람들간의 무서운 애정 결핍(배신과 살인)을 가리키고 있다.

1차대전의 병사(*A Soldier of the Great War*) 마크 헬프린(하코트 브레이스 조바노비치). 이상주의에 빠진 한 이탈리아 청년이 1차대전을 겪으면서 세상에 눈뜨게 되는 모습과 전쟁의 광기를 생동감 있고 운치 있게 묘사했다.

매춘부의 혼(*Harlot's Ghost*) 노먼 메일러(랜덤). 다름 아닌 CIA의 역사. 스파이들의 분열된 영혼도 양념으로 다룬다. 베를린에서 우루과이·쿠바·모스크바까지 주인공의 파란만장한 운명을 뒤쫓는다. 대작 중의 1부.

위험한 여자(*A Dangerous Woman*) 매리 맥거리 모리스(바이킹). 버몬트 주의 한 소읍에



사는 지능이 모자란 처녀의 이야기. 사랑을 갈구하지만 신경질적이고 자기파괴적인 성격 때문에 실패한다.

풍덩이 돌연변이(*The Gold Bug Variations*) 리처드 파워스(모로). 다소 길지만 움베르토 에코를 연상시키는 대단히 지적인 소설. 유전자 암호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바흐 음악, 플랑드르 미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건드리면서 한 유능한 과학자의 실패한 인생을 포우와 같은 긴박한 문체로 추적한다.

짜짓기(*Mating*) 노먼 러시(크노프). 이 재마나고도 심각한 소설의 자기 도취에 빠진 주인공은 인상적인 말투로 아프리카와 카리스마적인 인류학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다.

역사 만들기(*Making History*) 캐롤라인 시(휴먼 미플린).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인공은 모범적인 가장으로서 야심만만한 사업을 벌이지만 그의 앞에는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가족관계를 탁월하게 묘사한 작품.

천 에이커(*A Thousand Acres*) 제인 스마일리(크노프). 아이오와를 무대로 펼쳐지는 현대판 리어왕. 아버지가 광활한 농장을 세 딸 중 두 딸에게 물려주기로 마음먹으면서 '전형적인' 미국 가정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다.

요리신의 아내(*The Kitchen God's Wife*) 에이미 탄(퍼트넵). 한 여자의 비밀이 오밀조밀하

게 박혀 있는 이야기. 2차대전을 전후한 중국의 풍물과 모녀지간의 보편적인 진실을 보여준다.

점프,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Jump : And Other Stories*) 나딘 고디머(파라 스트라우스 지루). 노벨상 수상작가 고디머는 주옥 같은 16편의 단편에서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인종갈등으로 일그러진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침착하게 그린다.

성자가 아닐까(*Saint Maybe*) 앤 타일러(크노프). 앤 타일러가 즐겨 다루는 문제인 가정 이야기. 이번에는 형의 죽음으로 자책감에 시달리던 젊은이가 고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간다.

두 생명(*Two Lives*) 윌리엄 트레버(바이킹). 두 편의 중편소설은 인간관계의 복잡미묘함을 탐구한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여인을 그린 「투르게네프를 읽으며」와 현실을 극복하는 여인을 그린 「움브리아에 있는 나의 집」은 멋진 조화를 이룬다.

논픽션 부문(10종)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 미국시절(*Vladimir Nabokov : The American Years*) 브라이언 보이드(프린스턴대). 무한한 경이로 삶을 끌어안았으며 죽음은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라고 믿었던 나보코프의 수수께끼에 싸인 내면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러시아의 시절」

(Russian Years)의 완결판.

디킨스(*Dickens*) 피터 애크로이드(하퍼콜린스). 당분간 가장 뛰어난 디킨스 전기로 평가받을 만한 역저. 빅토리아 시대의 헝기왕성하고 야심만만하고 불안에 쫓기고 부자연스러웠던 천재를 다각도로 조감한다.

존 치버 일기(*The Journals of John Cheever*) 존 치버(크노프). 외로움과 어울림 사이를 오가는 가련한 인생이 주는 모순된 충동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兩性愛와 알코올 중독의 자책감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현대의 탄생 : 세계사회 1815-1830(*The Birth of the Modern : World Society*) 폴 존슨(하퍼콜린스). 현대의 모체는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 미국은 강대국이 되었고 영국은 아랍을 침공했으며 남미는 스페인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아주 독창적인 시각으로 씌어진 박진감 있는 연대기.

야만적 불평등 : 미국의 학교 어린이들(*Savage Inequalities : Children in America's Schools*) 조나산 코콜(크라운). 미국 아동교육의 문제점을 통렬히 파헤친 고발서. 가난한 아이들이 빈약한 시설, 빈약한 교사들을 가진 학교에 다니면서 점점 낙오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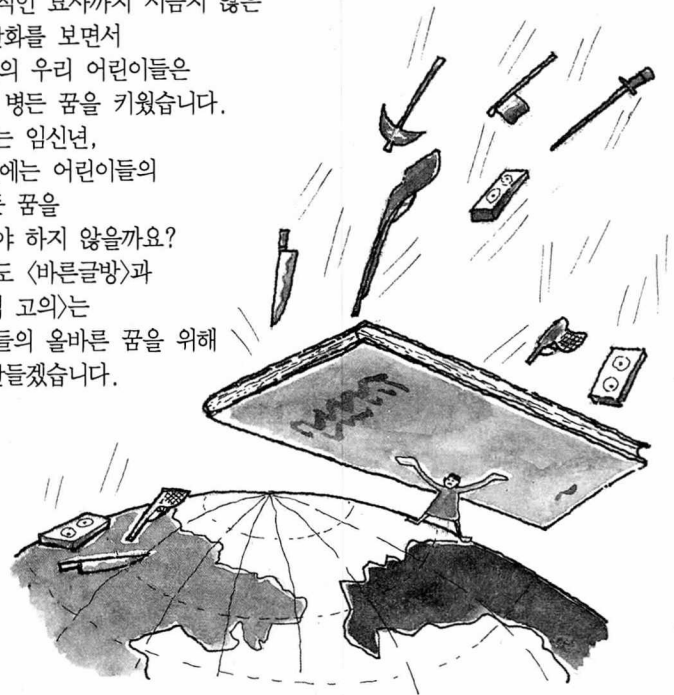
앤 섉스턴(*Ann Sexton*) 다이언 우드 미들브

어느 국민학생의 일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손오공이다.
 나또 이 다음에 드래곤 볼에 나오는
 손오공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카카로트와 같은 나쁜
 녀석들을 물리쳐 지구를 지키고 싶다.
 아 얼마나 멋진 일인가?

「드래곤 볼」은 일본에서 서유기를 제멋대로 번역한 어린이용 불량만화입니다.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성(性)적인 묘사까지 서슴지 않은
 이런 만화를 보면서
 1991년의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듯 병든 꿈을 키웠습니다.
 다가오는 임신년,
 1992년에는 어린이들의
 이 병든 꿈을
 치료해야 하지 않을까요?
 새해에도 <바른글방>과
 <미필적 고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꿈을 위해
 책을 만들겠습니다.



▶<바른글방>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출판기획상담 • 단행본·잡지 등 기획출판 대행 • 운문·교열·교정 대행 • 본문편집
- 단행본·아동물·참고서 등 전산조판 입·출력

▶<미필적 고의>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표지·본문 등의 디자인 • 출판광고 디자인 • 일러스트 • 출판제작대행

▶<바른글방>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 완전편집 가능한 KCE 편집입력기 SUPER WRITER 15대 • 300LP 1대
- ECRM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출·판·전·문·집·단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9
 한샘빌관 3층
 전화 325-5366(대)
 325-5363~5
 325-6484~5
 팩시 325-5362

다·자·인·전·문·집·단



머칠을 풍부한 자료로 박진감 있게 그린다.

페이퍼백 부문(7종)

두근대는 가슴(Heartthrobs) 막스 카바네(카탈란). 5편의 연작만화에서 프랑스 만화가 카바네는 처음 성에 눈뜬 소년의 열병과 뼈아픈 각성을 생생하게 익살맛있게 그린다.

유대인의 몸(The Jew's Body) 샌더 길먼(루틀리지). 문학비평방법론을 유럽의 신화·문학·예술작품에 적용하여 길먼은 흥미로운 유대인 남성 해석사를 썼다.

죽음의 노래(Death Song) 토머스 맥그로스(코로 캐넌). 고인이 된 시인은 범용성에서 숭고함을 찾는다. 이 시집의 아름다움과 힘은 맥그로스의 유한성을 넘어선다.

얼음숲(The Ice Forest) 마이클 맥키어(말보로). 시간의 파괴력, 궁극적인 고립상황에서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변함없이 이어지는 자연과 대비시킨 수작 단편집.

케이트 로버츠의 세계: 단편집 1925-1981 (The World of Kate Roberts) 케이트 로버츠(템플대). 장관의 부인이 신경쇠약에 걸린다. 암으로 죽어가는 석공이 부인에게 자기 감정을 전하지 못한다. 뛰어난 웨일즈 작가가 군더더기 없는 문체로 웨일즈의 경제적·문화적·정신적 쇠락을 담담히 그린다.

목격자(Witness) 후안 호세 사에르(서펜츠 테일). 16세기 스페인에서 신대륙을 향해 가던 배가 인디언의 습격을 받는다. 유일한 생존자인 급사가 전하는 카니발리즘의 진상.

목탄 스케치,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Charcoal Sketches: And Other Tales) 헨릭 센키에비치(엔젤). 「퀴바디스」를 쓴 이미 고인이 된 폴란드의 작가가 러시아 황제의 지배 아래 들어간 민중들, 프리시아에 점령당한 땅에서 쫓겨난 뒤 독일인을 증오하는 폴란드 농부의 이야기를 그린다.

록(휴턴 미플린 / 데이비슨). 평생 동안 성적 몽상에 시달린 여류시인의 전기. 섹스틴의 정신과의가 녹음해둔 상담기록을 참조했다 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족, 동료 시인, 연인, 친구들과의 면담, 시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토대로 앤 섹스틴의 내면의 흐름과 외면의 연대기를 탁월하게 조화시켰다.

유산: 진실된 이야기(Patrimony: A True Story) 필립 로스(사이먼&슈스터). 아버지가 암에 걸려 죽기까지의 투병과정을 지켜보는 소설가 아들. 그의 시선은 냉정하면서도 따뜻하다.

생명 없는 확실성(Dead Certainties) 사이먼 샤퍼(크노프). 한 사건의 체험적 지식과 그것의 역사적 해석 사이에 가로놓인 심연을 보여준다. 사실, 추론, 허구적 대화가 뒤섞인 연대기로 탐정소설 못지않게 흥미진진하다.

이상한 직업: 에세이와 비평(Odd Jobs: Essays and Criticism) 존 업다이크(크노프). 에세이·연설·서평을 모은 이 책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명쾌하고 참신한 시각을 제공하는 업다이크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된다.

전쟁으로의 긴 여로: 1941년 12월 7일 (Long Day's Journey into War) 스탠리 웨인 트라우브(더턴 / 텔리). 진주만 공격이 시작된 1941년의 어느 주말을 시간별로 추적한 야심작. 웨인트라우브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